



아랍의 봄 이후 신(新) 중동 질서와 역학의 해제집

안승훈·서정민 지음, 『중동 新 정치질서의 이해: 갈등과 분열』(Huine, 2018)을 읽고

백승훈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현재 중동 지역은 여태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가능성과 연계, 그리고 갈등이 복합적으로 추동되는 지정·지경학적 변환기를 맞고 있다.

우선, 중동지역 내 통용되던 기존의 친서구 민주주의 서구 세력과 굳건한 연대가 붕괴하고 새로운 권위주의 축,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 강화가 일어나고 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오스만 제국의 붕괴와 함께 성립된 중동 내 국민 국가들은 국제 사회의 중요한 의제인 석유 자원과 에너지 안보, 냉전 양강의 체제 경쟁을 우선적 정치 의제로 상정하고 영·미 패권 아래 힘의 균형 안정화를 우선시 하였었다. 그러나 60여 년 넘게 유지되어 오던 이러한 정치·지경학적 구조가 세일 혁명이라 불리는 석유 생산으로 인해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미국의 대중동 구상(Greater Middle East Initiative)의 민주주의 확산 정책이 촉발한 역내 민주주의 운동이 2011년 재스민 혁명을 거쳐 아랍의 겨울, 역내 국가 간의 갈등, 내전, 그리고 종파 갈등으로 귀결되자 기존의 영·미 패권이 아닌 러시아와 중국의 중동 진출을 계기로 새로운 권위주의 축(Axis of Authoritarianism) 강화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세일 혁명으로 인해 미국이 원유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되어 에너지 시장에서 주도권을 질 수 있는 국제원유시장에서 석유 공급 조절자(swing producer)가 되자, 이제껏 미국과 중동을 굳건히 이어 주던 중요한 연결고리가 약화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조짐이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신냉전의 도래까지 이어질 확률은 낮다. 이전의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양 체제 대립국면으로 회귀하

기에는 다양한 행위자들과 변수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동 내 발호하고 있는 권위주의 체제와 연대 강화는 미국 달러와 고정 환율 정책을 실행할 정도로 밀착 관계였던 미국 중동 패권 체제의 변환 혹은 재균형(Re-balancing) 상황임을 보여 준다.

특히 시리아 진출로 중동 역내 물리적 투사력 확보에 성공한 러시아와 일대일로로 압축될 수 있는 중국의 대중동 연계정책은 중동지역 내 새로운 갈등과 가능성을 동시에 추동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2011년 아랍의 봄까지, 중동 내 벌어지는 분쟁 및 갈등 과정의 해결사, 중재자, 혹은 외부 후원자(Outside Patronage)는 미국이었다. 그러나 현재 시리아 내전 평화 협상 과정에서 확연히 나타나듯이 아사드 정부의 생사여탈권 및 시리아 평화 협상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국가는 러시아다. 이는 기존에 역내 분쟁, 이·팔 분쟁 및 다양한 역내 문제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던 미국이 현 정치·지경학적 전환기 상황을 맞아 역할 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함축적으로 보여 준다. 향후 전개될 시리아 및 이라크, 리비아 난민 해결 문제, 쿠르드 국가 건설 등의 의제에서 이제껏 미국 패권 아래서 결정되던 기존의 양태에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큼을 보여 준다.

이러한 중동의 국제정세 변화에서 『중동 新 정치질서의 이해: 갈등과 분열』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환기적 시기의 국제관계, 내부정치, 경제, 사회 갈등의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지정·지경학적 변환을 분석하는 각 해당국의 정권 생존, 중동 지역 내 종파 정치 그리고 미, 중 전략 경합이라는 신냉전 체제 형성 관점에서 조망하였다.

물론 중동 역내 관계의 새로운 복잡성을 규명하려는 학계 내 연구가 이 책 이전에 없었던 것은 아니다. Gregory Gause III(2014, 2017)는 중동 신냉전 구도의 본질적 양상을 규명하는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신냉전 구도하에 중동 국가들의 동맹 관계 재편과 독특한 세력균형 전략을 분석하였다. 사회학 영역에서는 지정·지경학적 전환기가 추동할 변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었다. 특히 오스만 제국 해체 이후, 새롭게 건립된 중동 국가들이 자신만의 국민국가만의 정체성을 구축해 왔음에, 아랍의 봄과 극단폭력주의 세력의 도래로 인한 새로운 민족이동, 난민사태가 기존의 중동 사회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인지

대한 관심이 증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나의 척도로 중동 사회를 분석하기에는 다양한 유사성과 상이성이 공존하고 있어서 이를 분석하는 새로운 접근법이 논의되고 있다. 중동 지역 정체성의 다원적인 분석은 주로 국내보다 해외에서 연구되었다. Meijer(2017)는 중동 국가들의 국민 정체성과 시민의식의 변화 그리고 왕정체제 내 새롭게 정의될 수 있는 시민에 관해서 연구한 바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러한 중동의 구조적 변환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다루려는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동 新 정치질서의 이해: 갈등과 분열』은 우리에게 많은 함의점을 준다. 총 7장으로 구성된 본서는 우선 본문의 시작인 2장에서 신 중동 질서에 관한 분석 틀을 제시한다.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시작된 국제규범, 국민국가와 자치권, 국가이념 및 법제화, 영토 구획 등이 중동에 어떻게 정착했는지를 다룬다. 중동 지역에 등장한 근대 국가가 기존의 부족주의와 유목 정치와 영향 혹은 대립하며 성장하였는지를 조망한 뒤 각 중동 지역, 레반트, 걸프,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국가 중심주의 체제가 성립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한다. 아랍의 봄 이전 중동 지역을 설명하던 주요 개념인 중동 예외주의(Exceptionalism)는 물론 중동 지역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갈등을 증폭시켰던 인식론적 틀인 문명 충돌론과 정치 이슬람을 다루었다. 그 과정에서 냉전 시기 형성된 중동 내 미국 패권주의와 집단 안보 체제, 또 그 체제에 핵심 유인이었던 석유 에너지 안보와 중동 지역의 지대추구 국가(Rentier statism)와 그 영향력을 설명함으로 신 중동 질서를 분석하기 위한 이해의 틀을 제공한다.

3장에서는 아랍의 봄 이후, 중동 국가 분열 구도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시도한다. 2011년 아랍 시민 봉기가 초래한 나비효과는 중동 국가들의 정권 안보에 대한 의문점을 강화했다. 특히 걸프 국가들의 경우 기존의 지대추구 경제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왕정 정치 체제가 가까운 미래까지는 유지되겠지만 인구 구조상 큰 비율을 차지하는 15~35세들을 어떻게 기존의 체제로 설득시킬 수 있을지가 화두에 오른 것이다. 이에 더해 정치 이슬람 세력 및 다양한 역내 의제에 대해(이·팔 분쟁, 예멘 분쟁, 이란과의 관계) 기존의 단일 체제로 분류되던 걸프 왕정들이 더는 한목소리로 동일한 외교정책을 입안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결국, 이러한 변화에 따라 중동 국가들은 자신들의 국가 규모, 자원 매장량 정도, 인구 규모, 등등 자신들의 자산에 맞게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정권 생존을 위해 자구책

을 찾고 있다. 2장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대(對) 카타르 집단 단교 사태, 이슬람 국가(IS: Islamic State) 설립으로 인한 중동 국가들의 역학 변화, 아랍의 봄이 기대했던 중동지역의 민주주의 체제에 실패하고 나타난 권위주의 세력의 재집권을 중심으로 설득력 높은 해설을 제공한다.

4장은 중동지역 내 오래된 의제인 종파 갈등, 이슬람의 정체성 정치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담았다. 중동 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을 축으로 하는 패권 다툼에서 이용되는 종파 갈등, 사담 후세인의 축출 후 확립된 ‘시아파 초승달’ 지역과 이라크 내 시아와 수니의 권력 투쟁, 종파의 세력다툼 대리전쟁터가 되어 버린 시리아 등, 아랍의 봄 이후 생성된 신앙 정체성 정치의 상황을 권위주의적 정권 강화 국면과 함께 다루었다.

5장은 국제관계 측면의 거시적 관점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역내 질서를 다루었다. 중동지역에서 러시아는 오래전부터 중동에 관여, 개입의 역사를 가진 중요한 외부 세력이었다. 그러나 냉전을 거쳐 미국이 역내 지배적인 지위의 패권 국으로 등극하게 되면서 러시아의 영향력은 점차 미미해졌다. 그러나 아랍의 봄 이후 지난 10년간 중동지역 내 러시아의 전략적 중요성과 영향력은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아랍의 봄(Arab Spring)’ 이후 러시아는 시리아 알-아사드(Bashar al-Asad) 정권의 수호를 위해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지원을 확대하였고, 이는 역내에서 러시아의 힘과 영향력이 대대적으로 회복되었다. 특히 러시아, 이란, 터키의 권위주의 축(Axis of Authoritarianism) 동맹이 강화되자 많은 학자는 신냉전체제란 용어를 사용하며 현재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본서의 5장은 신냉전 구도 구축 관점에서 아랍의 봄 이후의 중동을 설명한다. 미국과 러시아의 중동 정책을 비교하고 느슨하지만, 세력 규합이 만들어진 미국-사우디-수니 대 러시아-이란-시리아-시아 구도를 조망하였다.

본서의 마지막 6장은 중동지역 국가들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석유 자원 및 지대추구 체제 그리고 아랍의 봄 이후 지속된 저유가 기조가 빚어낸 국제정치적 환경을 다루었다. 셰일오일 및 오일샌드와 같은 비전통적인 석유에 대한 개발의 본격화로 인해 중동지역의 지경학적 환경은 큰 변화가 일어났다. 미국이 석유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되자 기존의 중동 석유 안보를 미국이 책임지고 석유 수입의 대다수를 미국이 보존해 주는 미국의 중동 패권 유지의 중요한 한

축이 흔들리게 된 것이다. 이러한 석유 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함께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저유가 국면은 중동지역 산유국들이 석유산업에 대한 높은 경제 의존도를 탈피하고 유가변동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경제 다각화 전략을 추진하게 하였다. 따라서 6장에서는 셰일오일이 석유 시장에서 불러 일으킨 변화와 저유가 상황에서 중동 산유국이 어떠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는지를 상세히 다룬다. 특히 저유가 상황과 셰일오일로 인한 국가 안보 위협을 타파하려는 중동 산유국의 자구책을 설명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이해는 물론 중동 산유국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전망을 담았다.

본서는 아랍의 봄 이후 중동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과 변화를 종합적인 이해의 틀로 해제를 시도한다. 이는 칼 브라운이 주장했던 동방문제(Eastern Question)의 정의; 1) 중동 내 벌어지는 모든 문제는, 국지적이든 지역적이든 국제적인 것이던, 그 체제 내에 속한 모든 참여자에게 비슷한 강도로 파급되는 구조이고, 2) 중동 지역의 외교 형태는 지역적, 한정적 문제와 주요 국제 관련 문제가 구별 없이 혼용됨으로 사안의 중요성에 따른 위계나 지역 간의 구분이 불분명하게 진행되는 점, 3) 국가의 합리적 선택에 기반한 국익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기보다는 외부 열강의 이해관계가 개입된 세력 균형에 따라 외교 정책이 실시(Brown, 1984)된다고 볼 때, 매우 적절한 시도이다. 본서가 아랍의 봄 이후의 중동질서를 이해하기 위해 시도한 종합적 이해틀 구축은 각기 다른 층위의 사건들이 지역 간 구분 없이 추동되는 현 중동 상황을 분석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다만 본서가 5장에서 제시한 신냉전 체제를 통한 아랍의 봄 이후의 중동 국제관계 질서 구축의 이해는 제고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냉전이 중동 지역에 지속적으로 깊은 상흔을 남겼다는 주장이 주류이긴 하나 이에 대한 반론도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할리데이(Fred Halliday)는 냉전이 중동에 끼친 영향력에 대해 냉전이 전 세계가 피할 수 없었던 국가 간 분쟁을 격화시킨 과정임은 부인할 수 없지만 냉전 자체는 중동에 제한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았다(Halliday, 1997: 16). 냉전 기간 동안 실제 중동에서 냉전 체제가 영향을 끼친 부분은 생각보다 적고 오히려 현실주의적 국익 극대화를 위한 대내외 국가 간의 결속 과정으로 봐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주장이었다. 실제 현재 중동 지역에서 벌어지는 여러 갈등을 냉전 체제의 양강 대립 구도로(미국 vs 러시아/중

국) 분석하는 시도는, 2021년 현재에는 시대착오적인 면이 많다. 우선 중동 국가들은 더 이상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양 체제에서 미국 혹은 중국/러시아를 선택해야 하는 행위자가 아니다. 또한 이전의 석유 안보 차원에서 유지되던 친미 패권도 세일 혁명으로 인한 미국의 지위 변화로 인해 역대 ‘힘의 균형’의 재조정(Realignment of ‘Balance of Power’)이 발생하고 있는 형국이다.

세일 혁명으로 인해 미국이 원유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 에너지 시장에서 주도권을 쥐 수 있는 국제원유시장에서 석유 공급 조절자(swing producer)가 되자, 이제껏 미국과 중동을 굳건히 이어 주던 중요한 연결고리가 약화되었다. 걸프 산유국의 가장 큰 고객은 더 이상 미국이 아닌 중국으로 대체되고 있는 지정학적 환경의 변환 상황에서, 과거 냉전 구도를 대입하는 것은 정확한 중동 내 변화를 조망하는 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전의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와 같은 양 체제 대립국면으로 회귀하기에는 다양한 행위자들과 변수들이 있기 때문이다.

본서는 중동 정치 및 국제관계를 깊이 있게 다룬 학술서는 아니나, 일반 독자에게 쉬이 읽힐 책 또한 아니다. 그러나 본서의 저자인 서정민과 안승훈은 현대 중동 정치학자들의 2차 연구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일반 독자들에게 중동 정치의 이해를 종합적으로 돕는 ‘지식 전달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본서가 소개하는 중동 정체에 관한 폭넓은 설명은 일반 독자들이 완벽히 소화하기 쉽지 않다는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아랍의 봄 이후 중동에서 벌어지는 사태를 폭넓은 시야로 바라보도록 돕는다. 본서를 통해 독자들이 중동 정치 및 중동 국제관계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관점에서 중동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Brown, L. C. 1984. *International Politics and the Middle East: Old Rules, Dangerous Game* (p. 18).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Gause, G. F. 2014. "Beyond Sectarianism: The New Middle East Cold War." *Brookings Institute*, 4-7.
- _____. 2017. "Ideologies, Alignments, and Underbalancing in the New Middle East Cold War." *PS: Political Science & Politics* 50(3), 672-675.
- Halliday, F. 1997. "The Middle East, the Great Powers and the Cold War." In Y. Sayigh and A. Shlaim, eds. *The Cold War and the Middle East*. Clarendon Press.
- Meijer, R. and N. Butenschøn. 2017. *The Crisis of Citizenship in the Arab World*. Brill.

